

“영광에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안된다”

산자부, 전국 5개 원전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추진 원전지역 주민 “사회 갈등 초래 위험천만 계획 당장 철회하라”

영광을 포함한 전국 5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폐연료봉 등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신규 저장 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특성상, 세계 주요국도 영구처분장 마련과 안전성 확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 영구처분장 확보를 공언하는 동시에 처분장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설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핵없는세상을위한광주전남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의 핵심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지역 내 분열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정부 계획을 규정했다. 전국회의는 “영터리 공론화로 도출된 정부계획은 통과돼도 추진될 수 없는 계획이며, 논란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독립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공론화 등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지난 3월 활동을 종료한 뒤 9개월 만에 공개했다. 당시 재검토위는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영구처분시설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호응하듯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이 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원칙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이다. 정부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고 시간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계획에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10만년의 고통”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광주전남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원전 소재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영광지역 주민단체 관계자는 “공모를 통한 부지 확보”라는 정부 공언과 달리 중간저장시설 부지 확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영광이 핵폐기장으로 굳어지는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내놓은

문재인정부 계획이 박근혜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원전 부지내 신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두 정부 계획 모두 졸속, 반박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검토위 권고에 발맞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도 동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법안은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지내 신규(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신정훈(나주·화순), 이용원(광산갑),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24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함평, 오미크론 확진 6명 추가...22명으로 늘어

광주·전남 코로나 감염 확산 어린이집·교회 등 100명 안팎

전남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6명이 추가되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총 22명으로 늘었다. 교회, 광주시청 카페, 어린이집, 학교 등 곳곳에서 연쇄감염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일 신규확진자도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20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58명, 전남 35명 등 총 93명이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청 산하기관 공무원 관련 감염

이 지속됐다. 지난 19일 9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에도 8명이 추가돼 누적 17명으로 늘었다. 시산하기관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 14명은 가족과 지인 등이다. 광주시청 1층의 카페에서도 전남 중사자의 감염이 확인돼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남구의 초등학교 3곳에서 학생 4명, 교회에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교 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1472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다.

남구지역 교회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하루 3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9명, 해남 6명, 광양 5명, 여수·화순·무안 각 3명, 나주·영광 각 2명, 고흥·장성 각

1명이다. 35명의 감염자 중 18명은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14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 감염 경로 불분명 2명, 해외유입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도 조사한다.

전남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6명 추가되면서 누적 22명이 됐다. 이들은 모두 전북 외국인 유학 생활 n차 감염으로 시작된 함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감염자들이다. 해남에서는 읍내 어린이집 두 곳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바상이 걸렸다. 해남 어린이집 두 곳에서는 최근 이틀간 교사와 원생 등 12명이 감염됐고, 방역당국은 읍내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한 뒤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 적용 당정, 유력하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당정 협의가 현실화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시가격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땀집식 처방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날이 의견을 모으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정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폭등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번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화운동 펴낸... 드라마 ‘설강화’ 논란 ▶2면
굿모닝 예향 - ‘조선별’ 국악 핫스타 ▶18·19면
돌아온 손흥민 천금의 동점골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년 1만 251가구 분양 달성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Paragon | EG the 1

동양 최대의 신안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라인그룹의 가족사입니다

라인그룹 공개채용

채용분야 및 근무지

그룹사	회사명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분야
건설	라인건설 라인산업 EG건설 동양건설산업	신입	00명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인사총무, 회계, 재무, 법무, 전산, 분양관리, 도시개발, 수주영업, 건축관리, 안전, 보건
		경력	00명	건축, 토목, 전기, 설비, 건축관리, 부대토목, 안전, 인사총무, 회계, 재무, 전산, 분양관리, 수주영업, 견적, 자재구매, 조정, 현장소장, 보건 도시개발, 현장관리, 건축관리, 홍보,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개발사업, 주택영업, 현장관리(공무)
금융/투자	더블저축은행 골드파이낸스	신입	0명	여신영업, 경영관리, 내부통제, 수신텔러
		경력	0명	여신영업, 경영관리, 내부통제, 수신텔러
관광/레저	동양관광레저 파인스톤CC 파인스톤 리조트	신입	00명	객실관리
		경력	00명	객실관리, 조정파트, 코스관리
에너지	신안태양광발전소 신안풍력복합발전 동양에너지	신입	0명	전기, 설비
		경력	0명	전기, 설비, 영업관리
사회공헌	라인문화재단 라인장학재단	경력	0명	학예실장, 학예사(큐레이터), 공연기획

※ 지원방법: 당사 홈페이지(www.linecon.co.kr, www.dongyangex.co.kr) 참조

Line Group

건설사	금융/투자	관광/레저	에너지	사회공헌
라인건설 라인산업 EG건설 동양건설산업	더블저축은행 골드파이낸스	동양관광레저 THE PINESTONE THE PINESTONE RUMWASAM COUNTRY CLUB	신안태양광발전소 신안풍력복합발전 동양에너지	라인문화재단 라인장학재단